

한국, ICT 핵심 5대 기술 중국에도 밀렸다

**이동통신·전파·기반SW 등
미·일·중·유럽 중 최하위
블록체인 미국에 2년 뒤쳐져
정부 규제·빈약한 지원 탓**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양자정보통신 등 새 융합기반 기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산학연 전문가 124명을 설문조사해 작년 한국의 블록체인과 양자통신 기술 경쟁력을 평가했다. IITP는 한국 블록체인과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ICT 연구개발(R&D) 선도국인 미

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몇 년씩 뒤쳐졌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미국의 76.4%에 그치며 미국과 2.4년 격차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유럽(96%), 일본(84.8%), 중국(78.9%) 등 주요국에 모두 뒤졌으며, 미국과 격차 면에서도 1.8년 차이인 중국에도 밀렸다. 특히 양자정보통신의 경우 한국은 73.0%로, 미국과 격차가 무려 4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과 2년 격차인 중국(84.7%)의 2배 수준이다. 유럽과 일본은 각각 94.7%와 88.9%로 미국과 0.7년, 1.5년 격차를 보였다. 블록체인과 양자정보통신은 지능화 기술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위한 기반기술

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기술로 꼽힌다. 한국 블록체인 기술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뒤쳐진 것은 신기술인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업체 스티잇과 싱가포르 스타트업 IOS(아이오에스) 등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은 거래 실명제 도입과 대형 거래소 단속 여파로 침체를 맞았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760억 위안(약 13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연구소인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를 짓기로 했지만 한국은 대규모 양자기술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동통신과 소프트웨어 등 기존

ICT 10대 기술 수준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며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다. 한국의 10대 기술 평균 수준은 미국과 1.3년(83.5%) 격차를 보이며 2016년 1.5년(80.5%)보다 격차를 좁혔지만 같은 기간 격차를 1.7년에서 1.3년으로 좁힌 중국에 따라 잡혔다. 유럽과 일본은 미국에 비해 각각 0.7년과 1년 차이를 보였다. 10대 기술 중 이동통신(0.7년)과 네트워크(1.6년), 전파·위성(1.5년), 기반 소프트웨어·컴퓨팅(1.8년), ICT디바이스(1.7년) 등 5개 기술은 중국에도 밀려 꼴찌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는 중국과 같은 1.8년이었으며 융합서비스(1.4년), 방송 스마트미디어(0.4년), 디지털콘텐츠(1.4), 정보보호(1.0) 등 4개 부문만 중국을 앞섰다. /연합뉴스

■ 지난해 주요국 정보통신 분야 기술수준

구분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상대 수준	격차 기간
블록체인	76.4	2.4	100	0	96	0.5	84.8	1.3	78.9	1.8
양자 정보통신	73	4	100	0	94.7	0.7	88.9	1.5	84.7	2
10대 기술 평균	83.5	1.3	100	0	90.7	0.7	87.2	1	82.5	1.3
이동통신	92.3	0.7	100	0	94	0.6	90.7	0.9	93.1	0.5
네트워크	81.1	1.6	100	0	89.9	0.9	86.3	1.1	85.2	1.1
전파·위성	82.5	1.5	100	0	92.9	0.5	86.2	1	83.2	1.4
기반SW·컴퓨팅	77.3	1.8	100	0	87	1	82.5	1.3	82.2	1.2
ICT 디바이스	78.3	1.7	100	0	92.8	0.6	89.6	0.9	84.2	1.1

(단위:%, 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초소형 위성 '마르코'가 100만km 밖에서 찍은 지구

**서류가방 크기 교육용 위성
화성 향하던 중 사진 전송**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지하탐사선 '인사이트(InSight)'와 함께 화성으로 향하던 큐브셋 '마르코(MarCo)'가 100만km 밖에서 작은 점으로 된 지구 사진을 전송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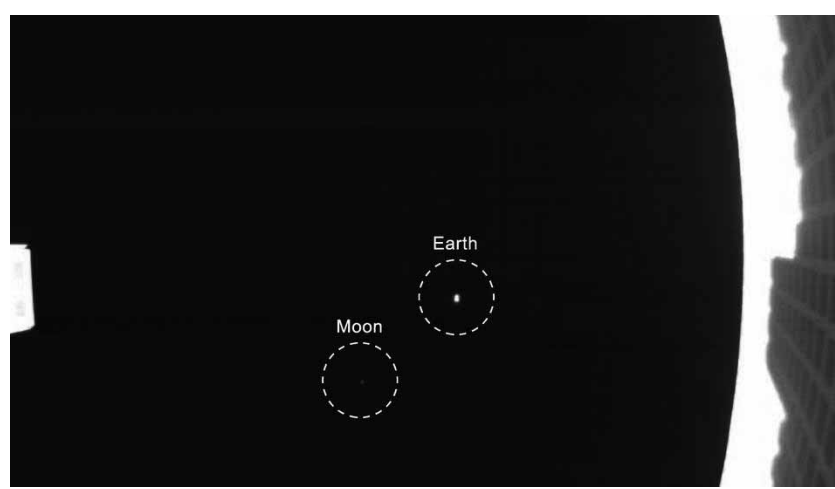
NASA는 15일(현지시간) 마르코 2대 중 '월이(Wall-E)'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마르코-B가 보내온 첫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구 사진은 1990년에 태양계 무인탐사선 '보이저1호'가 수심억 km 떨어진 곳에서 찍어 보낸 '희미한 푸른 점(pale blue dot)' 사진이 이미 있지만, 초소형 위성인 큐브셋이 이처럼 우주 깊숙이 들어가 찍은 사진을 전송한 것은 처음이다.

NASA는 지난 5일 화성 표면에 착륙해 지하를 탐사할 인사이트를 아틀라스 5 로켓에 실어 발사하면서 큐브셋 2대도 함께 실어보냈다.

큐브셋 마르코는 지난 8일 지구에서 100만km 떨어진 곳을 통과했으며, 고성능 안테나가 제대로 퍼져지는지 여안렌즈 카메라로 촬영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구와 달이 작은 점으로 함께 찍혔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마르코 담당 수석 엔지니어 에디 클래시는 "이 사진을 보이저호에 대해 경의를 표한 것으로 봐달라"면서 "큐브셋이 이



NASA 큐브셋 '마르코-B'가 100만km 밖 우주서 전송한 지구·달 사진. <NASA 홈페이지 캡처>

처럼 멀리 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르코 2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더 멀리 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브셋은 학생들에게 위성에 관해 교육하기 위해 개발된 뒤 현재는 선박의 항로부터 기후 변화에 이르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중요한 우주기술로 자리를 잡았다.

큐브셋은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각 10cm, 무게는 1kg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것도 있으며, 대부분 지구 상공 800km 이내의 궤도를 돌고 있다.

마르코는 서류가방 크기인 것으로 전

해졌다. 인사이트호는 11월 26일 화성에 착륙을 시도하는데 대기층이 얇아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르코가 무사히 화성까지 가면 인사이트호가 화성 대기에 진입해 착륙하는 과정에 관한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 이 역할을 하려면 고성능 안테나가 제대로 퍼져야 하며, 첫 실험에서는 성공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마르코의 이번 임무는 거기까지이다. 인사이트가 화성에 지진계와 열측정 장비를 설치해 수집하는 화성 지하 구조에 관한 자료들은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NASA 화성 정찰위성(MRO)가 맡는다. /연합뉴스

버건디 레드·선라이즈 골드...5色 S9

삼성전자 전락 스마트폰 갤럭시S9 시리즈가 새 색상을 입는다.

삼성전자는 이달 25일 갤럭시S9 시리즈의 버건디 레드 색상을, 다음달 초 선라이즈 골드 색상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제품 출시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사용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18일 출시를 앞둔 LG전자 새 전락 스마트폰 G7 씽큐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는 최근 이례적으로 출시 2개월만에 갤럭시S9 플러스 256GB 모델 출고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신규 색상은 모두 64GB 모델로 출시되며 가격은 갤럭시S9 95만7000원, 갤럭시S9 플러스 105만6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버건디 레드와 선라이즈 골드 색상은



S9 새 색상 시리즈.

마르코 갤럭시S8에서 처음 선보인 색상으로, 레드와인에 빛이 투영됐을 때 느껴지는 깊고 깨끗한 느낌을 표현한 색상이다.

선라이즈 골드는 태양 빛이 공기 중 부딪히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색상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최초로 삼성만의 글라스 표면 처리 공법인 새틴 글로스(Satin Gloss) 공법을 적용해 새틴 원단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광택의 느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갤럭시S9 시리즈는 미드나잇 블랙, 코랄 블루, 라일락 퍼플에 이어 버건디 레드, 선라이즈 골드까지 총 5개의 색상을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9 신규 색상 출시를 맞아 17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 체험존인 '갤럭시 스튜디오'도 새롭게 단장한다.

강남 파미에스테이션, 여의도 IFC몰, 스타필드 강남·고양, 대구 동성로, 광주 송정역, 부산역 등에 마련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AR 메이크업' 등을 체험하고, 새 색상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국 4000여개의 모바일 특화 체험매장 'S·Zone'에서도 신규 색상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KT,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 3곳 선정

KT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미래사업 육성에 나선다.

KT(회장 황창규)는 최근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메트로랩 등 3개사를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비즈 콜라보레이션'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KT 부서와 일 대 일로 맞춤형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에게 연

구개발은 물론 특허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KT는 전자 집적회로(IC) 기반의 IoT 스마트 전구, 조명 제조업체 '메트로랩',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AI 질의응답 검색 엔진 개발 스타트업 '포티마루',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 레시피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탈헛트' 등 3개 기업을 선발했다.

이들은 KT와 공동 개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SK텔레콤·맥쿼리그룹

휴대전화 대여 사업 추진

SK텔레콤이 글로벌 투자업체 맥쿼리그룹과 손잡고 휴대전화 리스(lease)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맥쿼리와 휴대전화 리스 시장 진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이달 중 사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